

# 축산업계

소식

## 닭 류코사이토준병 발생예보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10일 류코사이토준병 발생 예보를 발령했다.

닭의 원충성 질병인 류코사이토준병은 닭겨모기가 매개하는 전염병으로 1988년 여름에 경기지역까지 산발적으로 발생되었으며, 금년 여름에는 발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어 발생예보를 발령했다. 양계농가에서는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1. 발생과 전염

○ 닭 류코사이토준병은 세계적으로 발생하나 한국, 일본, 대만, 말레이지아 등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에 발생 보고된 이래 주로 남부지역인 영남지방에 발생되어 추풍령 이남에만 문제되는 질병으로 알고 있었으나 1988년에는 경

기 이천, 여주, 강화지역까지 발생되어 올해는 우리나라 전지역에 광범위하게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본병은 중간매개체인 닭겨모기(1~2mm크기)가 닭을 흡혈할 때 원충(原虫)을 전염시킴으로써 발생하므로 시기적으로는 6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많다.

### 2 주요증상

〈병아리〉

○ 처음 1~2일 동안 식욕이 떨어지고 원기가 없으며 푸른색의 설사를 한다.

○ 심해지면 입이나 코로부터 피를 흘리며 죽는 경우도 있다.

○ 해부를 해보면 복강, 기관, 소낭 등에 출혈이 되어있고 간이나 비장에 크고 작은 출혈반이 있다.

〈큰 닭〉

○ 벼슬이나 육수에 심한 빈혈증상을 일으키고 녹색의 설사를 하며 산란이 중지되거나 기형란을 생산한다.

○ 본병에 걸렸어도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내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균체가 되어 산란율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다.

○ 해부를 해보면 온몸에 빈혈증상이 있고 내부실질장기에 출혈이 되어 있다.

### 3 예방과 치료

○ 본병의 발생은 원충이 감염된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양계장에 닭겨모기가 많이 서식하면 심하게 발병되고 적게 서식하면 감염되더라도 불현성 감염으로 내과하나 산란율에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따라서 중간 매개체인 닭겨모기를 박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축사주변의 웅덩이나 축사 내외부에 정기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하여 닭겨모기 발생의 근원을 없애는데 신경을 써야한다.

○ 약으로 예방할 때는 병아리의 경우 여름동안 할로푸지논, 크로피돌, 올메토르립, 살파메톡신제제 등을 육계사료와 대추사료에 배합하여 계속 투여하고 성계에서는 1주일정도 2~3회 투약하면 발병을 막는 반면 면역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 일단 발병된 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병계를 제거함과 동시에 살파디메톡신을 1주일정도 투약하면 쉽게 치료되나 산란율이 정상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치료보다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 **육계계열화사업 주체회의 - 농림수산부 주최로 -**

농림수산부는 지난 6월14일 본회 회의실에서 '육계계열화사업 선정업체 회의'를 가졌다.

이날 계열주체들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한 후 토론을 가졌다. 계열주체는 정부의 각부서별로 협조가 안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계시설 등 여건성숙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수산부 중소기축과장은 계열화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며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업체는 자금을 회수하는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육류내 위해물질 검사 강화**

농림수산부는 수육내 항생물질, 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중금속 등 인체유해물질 잔류로 인한 국민보건위생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수육내 잔재하는 항생제 등의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을 5월22일 개정·공포했다.

일본에 수출한 돼지고기에서 살파제가 검출되어 반송 조치된 바 있으며, EC도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 성장촉진 호르몬제를 사용한 육류수입규

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수입쇠고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 보여진다.

또한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폐니실린 등 항생아물질 28종, 살파메타진 등 29종, 살충제 트리클로로폰 등 7종 총64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시험방법과 폐니실린 등 27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다.

따라서 수입육류나 국내생산 육류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육류는 식용으로 공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학교 수의과학연구소(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류, 성장촉진호르몬제) ○ 미원 축산과학연구소(합성항균제) ○ 한국과학기술원 도핑컨트롤팬타(합성항균제, 농약류, 성장촉진호르몬제) ○ 선진축산(합성항균제) ○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합성항균제) ○ 제일제당 종합연구소(항생물질, 합성항균제)

### **농림수산부 내년 예산 3조2천9백억원 책정**

농림수산부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금년 보다 11.9% 증가한 3조2천9백17억여원으로 책정하여 경제기획원에 승인을 요청했다.

90년 예산안중 축산사업에는 237억3천9백96만8천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주요사업은 초지조성, 축산물공판장 건설, 한우개량단지 지원, 가축인공수정사업 지원, 학교급식비지원, 계란집하장 설치 지원, 벗짚암모니아처리사업, 가축방역, 사료검정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 **한미 낙농경영 단기과정 개최 예정**

한국 낙농육우 협회 7월24~28일 -

한국 낙농육우 협회는 선진낙농국의 기술과 경험을 소개하기 위하여 84년부터 개최해오던 한미 낙농

경영단기 과정을 오는 7월24일부터 28일까지 축산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고능력은 사양관리를 주제로한 젖소의 소화생리, 영양소요구량 계산, 사료조리 및 배합사료 급여량 계산, TMR 등 사양관리, 전업규모에 맞는 계류식 우사와 관련한 우상설계, 환기체계 등 낙농시설과 사료작물, 젖소개량, 낙농전망, 낙농정책에 대한 경영강좌가 있을 예정이다.

### 기축번식학회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 기축번식학회(회장 배대식)은 '89년도 춘계 학술세미나 및 임시총회를 지난 5월27일 수원 축산시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축산시험장 이근상 박사의 「축 시의 소 번식 연구동향」, 강원 대학교 김정익 박사의 「난포란의 체외수정과 발육」, 제주대학교 강민수 박사의 「가축정자의 미세구조 및 정자생리」, 고려대학교 이상호 박사의 「포유동물의 수정 및 초기 배 발생에 있어서 표충립 방출의 역할」에 관한 발표가 있다.

### 수입쇠고기 홍보책자 배포

축산물 유통 사업단은 수입쇠고기 요리홍보책자를 제작·배포했다.

「수입쇠고기를 맛있게 조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1만5천부를 배포한 이책은 수입쇠고기의 부위별 명칭, 선택요령, 조리요령, 해동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이 책은 수입냉동육의 우수성을 맛, 품질, 위생면에서 홍보했다.

###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정책개발 세미나 개최

- 민주정의당 주최로 열려 -

민정당은 지난 6월2일 민정당 중앙당 통일관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정책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단국대 김동희 교수의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농협대 서기원 교수의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대응정책"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당신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실때 즉시 입수하여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MISSET INTERNATIONAL 사는 세계 각국에 축산기술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POULTRY」 및 「PIGS」 잡지를 통하여 경영수익을 올리십시오.

신청하시면 어느 곳이나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MISSET**  
INTERNATIONAL

Misset International      Phone (0)8340-49562  
P.O. Box 4                  Telex 45481 misset nl  
7000 BA Doetinchem      Fax (0)8340-40515  
The Netherlands